



“비판하지 말고 섬기라”  
(마태복음 7:1-6)

■ 들어가는 말

말하는 것을 좋아합니까? 듣는 것을 좋아합니까?

■ 말씀 속으로 - 들어가 봅시다.

(1절)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

(2절)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

(3절)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

(4절)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

(5절)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

(6절)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

1.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에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입니까?

=> (1절)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

2. 비판을 잘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. 스스로에 대해 간과하는 것은 무엇 일까요?

=> (3절)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

3. 남에 대한 비판꺼리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?

=> (5절)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

4. 다른 사람의 티를 보았을 때, 내게도 들보와 같은 허물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까?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지 나누어 봅시다.

=> (돌아가면서 나누어 봅시다)

5. 남을 비판하기보다 더 겸허히 나를 돌아보기 위해 결단할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누어 봅시다.

=> (돌아가면서 나누어 봅시다.)

■ 기 도

허물 많은 죄인이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스스로 완전한 사람인양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. 비판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 때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욱 주님 닮아가기를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

초 청 합 니 다

참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.  
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,  
상처가 있는 곳에 위로가,  
절망하는 이에게 희망이,  
필요한 때입니다. 이 모든 것을  
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.

예수 그리스도!

여기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 
잘 인도하는 참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.  
바로 온양삼일교회입니다.

“온양삼일교회”는 당신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당신에게는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을만한 아름다운 삶(신앙)의 이야기가 있나요?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.

